

【논문】

## 새로운 독단주의, 그리고 또 다른 독단주의

김 준 열\*

【주제분류】 인식론 회의주의

【주요어】 회의론, 독단론, 폐쇄성, 보증전이

【요약문】 나는 본고에서 프라이어의 독단주의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지적하고, 이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독단주의를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프라이어의 독단주의는 회의론 논증에 대한 공통성 논제로부터 출발한다. 이 공통성 논제는 회의론 논증이 공통된 형태로 일반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프라이어는 회의론 논증이 지식에 대한 폐쇄성 원리를 이용한 회의론 논증 형태로 일반화될 수 없으며, 따라서 폐쇄성 원리에 기반한 논증 형태가 회의론 논증의 적절한 형태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는 공통성 논제를 받아들이면서도 폐쇄성 원리를 이용한 회의론 논증 형태가 가능함을 보일 것이다. 이 과정에서 폐쇄성 원리를 이용한 회의론 논증은 새로운 형태를 얻게 된다. 본고에서 내가 제시하고자 하는 새로운 독단주의는 바로 이 새로운 형태의 폐쇄성 원리를 그 기초로 삼는다.

---

\* 서울대학교 철학과 석사

우리는 과연 우리 자신이 전능한 기만자의 세계에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만약 내가 우리 세계가 전능한 기만자의 세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알 수 없다면, 도대체 나는 이 세계에 대한 어떤 사실을 알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하여 모두 “아니오.”라고 대답하는 입장이 바로 극단적 회의주의<sup>1)</sup>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 나는 “알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러한 회의론에 맞서서, “알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독단주의dogmatism의 한 모델을 구성하고자 한다. 나는 프라이어James Pryor의 독단주의(Pryor, 2000)를 이 목표를 위한 출발점으로서 삼겠다. 프라이어의 독단주의는 기존 회의론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출발한다. 나는 프라이어의 날카로운 비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회의론 논증을 재구성하는 작업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바로 이 새로운 회의론 논증에 대한 고찰로부터 나의 독단주의 입장을 구성하겠다.

## I. 프라이어의 독단주의

앞서 말한 것처럼, 극단적인 회의론의 정반대에 놓여있는 입장을 독단주의라고 부른다. 극단적인 회의론자들은 i)우리의 세계가 전능한 기만자의 세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며, ii)그러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한, 우리는 어떠한 것도, 심지어 “나는 손을 가지고 있다.”는 것(혹은 그와 같은 성격의 일상적인 지식의 대상이 되는 명제들)에 대해서도 알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맞서, 독단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i’)우리는 우리가 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따라서 ii’)우리는 우리 세계가 전능한 기만자의 세계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다고 주장한다.

프라이어(Pryor, 2000)는 무어에 의해 시작된 소박한 형태의 독단

---

1) 앞으로 “회의주의”로 약칭된 말들은 모두 이 “극단적 회의주의”를 의미한다.

주의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독단주의를 주장한다. 그의 주장은 다음의 세 가지 입론으로 구성된다.

(p)회의론 논변의 공통성 논제: 극단적인 회의론 논변들은 공통적인 형태를 지닌다.(Pryor, 2000, p.522)

(q)침식undermining-파기자defeater 논제: 회의론 논변들이 기반하고 있는 회의적 가설들은 공통적으로 침식-파기자이다.(p.527)

(r)독단주의 논제: 우리의 지각은 우리의 지각적 믿음에 대한 즉각적prima-facie 정당화justification를 줄 수 있다.(p.536)

우선 (p), 즉 공통성 논제는 회의론 논변들에 대한 경험적 관찰에 따른 주장이라고 볼 수도 있으며, 혹은 회의론 논변이 지녀야만 하는 성격에 대한 선험적, 혹은 규범적 주장이라고 볼 수도 있다. 프라이어는 공통성 논제가 전자, 즉 경험적 주장에 해당한다고 보는 듯하다. 아마도 공통성 논제를 주장하는 또 다른 이가 있다면, 그는 이 논제가 회의론 논변이 지녀야만 하는 성격에 대한 선험적 주장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와 같은 (p)가 선험적 주장이나, 경험적 주장이나의 문제는 나의 논의에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p)와 관련하여 야기되는 중요한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 이 문제를 살펴보기 위하여 회의론 논증들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살펴볼도록 하자. 회의론 논증들에 대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기초 논변을 구성해 볼 수 있다.

<기초 논변Basic Argument>

BA<sub>1</sub>. 나는 손을 가지고 있다.

BA<sub>2</sub>. 만약 내가 손을 가지고 있다면, x가 아니다.

BA<sub>c</sub>. x가 아니다.

이 기초 논변의 “x” 자리에는 우리가 “회의적 가설”이라고 부르는 가설들이 들어온다. 극단적 회의론 논증에 사용되는 회의적 가설들에는 “전능한 기만자의 가설”, “통 속의 뇌 가설”, “꿈 가설” 등이 있다. 이제 x의 자리에 “전능한 기만자의 가설”을 넣고, 회의론 논증을

구성하여 보자.

<전능한 기만자 가설 Evil Demon Hypothesis 기반 회의론 논증>

EDHS<sub>1</sub>. 만약 내가 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나는 내가 전능한 기만자의 세계에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EDHS<sub>2</sub>. 나는 내가 전능한 기만자의 세계에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모른다.

EDHS<sub>c</sub>. 나는 내가 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

위와 같은 회의론 논변의 건전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우리가 가장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은 EDHS<sub>1</sub>이 과연 참인가 하는 점이다. 이 전체에 대한 근거는 연역적 함축 하에서의 지식의 폐쇄성 원리 Principle of Closure of knowledge under known entailment에 있다.

(폐쇄성 원리) 만약 내가 p를 알고 있고, p가 q를 함축entail한다면, 나는 q를 알고 있거나, 혹은 적어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다.<sup>2)</sup>

폐쇄성 원리는 상당한 직관적 설득력을 지닌다. 내가 저기 있는 저 사람이 나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바로 그 사람이 여자라는 사실을 모를 수 있겠는가? 우리의 직관적 대답은 분명히 “아니요.”이다. 만약 내가 전자를 안다면, 나는 후자를 알거나 혹은 적어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만 한다. EDSH<sub>1</sub>은 바로 이 폐쇄성 원리에 의존하고 있다. BA<sub>2</sub>를 보라. 내가 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내가 전능한 기만자의 세계에 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함축한다. 그렇다면

---

2) 사실 여기에서 언급된 폐쇄성 원리 역시, 어느 정도 개량된 것이다. 기존의 폐쇄성 원리는 “...혹은 적어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다.”와 같은 구절을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한 기존 폐쇄성 원리에 대한 다음과 같은 반론이 널리 알려져 있다: “인식주체는 p를 분명히 알면서도 p와 q의 함축관계를 모르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 함축관계를 모르는 경우 인식주체는 p를 알면서도 q를 알지 못할 수 있다.” 이러한 반론에 대하여 대응하는 한 가지 방식은 조건문의 후건을 위와 같이 약화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폐쇄성 원리에 따라  $EDSH_1$ 과 같이 말할 수 있게 된다.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폐쇄성 원리는 회의론자를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로 여겨져 왔다.

그런데 공통성 논제, 즉 극단적 회의론 논증들은 공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는 순간, 폐쇄성 원리는 회의론을 위한 무기로서의 효용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처럼 보인다. 앞서 말한 것처럼, 극단적 회의론 논증들이 기초하는 가설들 중에는 “꿈 가설”이 포함된다. 이제  $BA_2$ 의 ‘x’ 자리에 꿈 가설을 넣어보도록 하자.

$BA_2$ -Dreaming. 만약 내가 손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위의 명제가 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i)내가 손을 가지고 있으면서, ii)동시에 꿈을 꾸고 있는 상황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 조건문의 전건과 후건 사이에 더 이상 논리적 함축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우리는 “만약 내가 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나는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라고 말할 수 없다. 극단적 회의론 논변의 하나로 여겨져 온 꿈 가설 기반 회의론 논변에 대하여 우리는 폐쇄성 원리를 적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Pryor, 2000, pp.522-523). 중요한 회의론 논변 중 하나인 꿈 가설 기반 회의론 논변이 폐쇄성을 그 기초로 삼는 형태를 지닐 수 없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회의론 논증에 대한 공통성 논제에 따라 회의론 논증들은 폐쇄성을 그 기반으로 삼는 형태가 아닌, 다른 형태에 따라 일반화 된다.

(q), 즉 침식-파기자 논제는 바로 이 다른 형태의 일반화 방식에 대한 논제이다. 프라이어에 따르면, 모든 회의적 가설들은 기본적으로 침식-파기자, 즉 믿음과 그 믿음에 대한 근거 사이의 관계를 위협하는 새로운 근거들이다. 본고에서 다루지는 않겠지만, 프라이어는 자신의 논문에서 침식-파기자로 파악된 회의적 가설들에 맞게 새로운 회의론 논증을 구성한다.

(r), 즉 독단주의 논제는 위와 같이 새롭게 구성된 회의론 문제에 대하여 프라이어가 펼치는 반대 주장이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의 지각은 우리의 지각적 믿음들에 대한 즉각적 정당화를 줄 수 있으며, 이 정당화 관계에 대한 파기자인 회의적 가설들은 그 회의적 가설들을 지지하는 별도의 증거들을 지닐 때에만,<sup>3)</sup> 이 관계를 파기한다. 우리의 지각들은 실제로 파기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여전히 우리의 지각적 믿음들에 대한 정당화로서 정당하게 기능할 수 있다.

## II. 새로운 형태의 폐쇄성—기반 회의론 논변

위의 논의가 보여주듯이, 공통성 논제는 침식—파기자 논제로 넘어가기 위한 중요한 길목이다. 극단적 회의론 논변은 공통적 형태를 지녀야 한다. 그런데 꿈—가설을 기초로 삼는 회의론 논변은 폐쇄성—기반 형태를 지닐 수 없다. 따라서 폐쇄성—기반 형태는 회의론 논변의 기본 형태로서 포기되어야만 하며, 우리는 회의론 논변에 대하여 새로운 일반적 형태를 찾아야만 하는 것이다. 이 일반적 형태에 대하여 제시하는 프라이어가 제시하는 바가 바로 침식—파기자 논제에서 드러난다. 물론 앞서 말한 것처럼, 침식—파기자 논제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여기에서 생략할 것이다.<sup>4)</sup>

나는 공통성 논제가 기본적으로 옳다고 여긴다. 회의론 논변이 한낱 이야기와 다를 바 없는 회의적 가설들에 따라 그 기본성격을 달리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특정한 회의

---

3) 그러나 회의론 가설을 위한 별도의 증거가 회의론 가설을 완벽하게 뒷받침하는 것일 필요는 없다. 만약 그러한 주장을 한다면, 이는 회의론 가설을 불공정하게 다루는 것이다. 전능한 기만자의 가설을 누군가에게 “우리의 세계는 전능한 기만자의 세계일지도 몰라.”라는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회의론 가설을 위한 증거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보아야 한다.

4) 자세한 것은 프라이어(Pryor, 2000, Sec.2)를 참조하라.

적 가설들이 먼저 발생하고 난 뒤에 특정한 회의적 문제들이 등장한다고 보아야만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반대의 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이며, 또 성립해야만 한다. 즉, 어떤 일반적인 회의적 문제가 먼저 제기되고, 이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기 위하여 회의적 가설들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회의적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여겨졌던 세 가지 대표 가설들 역시 어떤 공통적인 문제에 기초하여 만들어졌을 것이며, 적실한 회의론 형태는 바로 이 공통적 문제를 보여주어야만 한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여전히 폐쇄성 원리가 회의론을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사용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회의론 논증들이 폐쇄성 원리에 기반하고 있을 때 가장 견고한 형태를 지니며, 간과하기 힘든 회의적 문제를 잘 보여주는 것 같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다음의 두 가지 상충되는 명제들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공통성 논제) 극단적 회의론은 공통적인 형태를 지닌다.

(폐쇄성 논제) 극단적 회의론은 폐쇄성-기반 형태를 지닐 때에 가장 견고하며, 극단적인 회의적 문제를 가장 잘 드러내는 것처럼 보인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공통성 논제는 위의 폐쇄성 논제와 상충되는 결론을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고 싶다. 본고에서 나는 다음의 논리적 가능성을 탐구하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폐쇄성-기반 회의론 논증은 적절한 형태를 지니지 못하였다. 만약 우리가 적절한 형태를 찾아준다면, 폐쇄성-기반 회의론 논증은 다시금 회의론을 위한 강력한 논증이자, 회의론 문제의 효과적 전달자로서 기능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폐쇄성-기반 회의론의 적절한 형태란 무엇인가? 우선 나는 1절에서 살펴보았던 기초 논변과는 조금 다른 논변을 제시하고자 한다.

## &lt;새로운 기초 논변&gt;

New-BA<sub>1</sub>. 나는 나의 손에 대한 진짜 지각을 가지고 있다.

New-BA<sub>2</sub>. 만약 내가 나의 손에 대한 진짜 지각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바로 그 지각을 전능한 기만자의 세계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New-BA<sub>c</sub>. 나는 나의 손에 대한 바로 그 지각을 전능한 기만자의 세계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관심 사항은, 위의 논변의 두 번째 전제, 즉 New-BA<sub>2</sub>가 과연 참인가 하는 점이다. 만약 New-BA<sub>2</sub>가 참이라면, 즉 전건이 후건을 함축한다면, 우리는 위의 새로운 기초논변에 의거하여서 폐쇄성-기반 회의론 논변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New-BA<sub>2</sub>는 참이다. 전건은 분명히 후건을 함축한다. 전능한 기만자의 세계에서 가지게 되는 나의 지각은 속임수fake 지각이다. ‘진짜’ 지각을 가진다는 것은 곧 속임수 지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함축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New-BA<sub>2</sub>를 폐쇄성-기반 회의론 논변을 구성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위의 새로운 기초 논변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앞서의 기초 논변이 외부 사실 자체의 함축 관계에 기초하고 있는 반면에, 새로운 기초 논변은 지각을 가지는 상황들 사이의 함축관계(‘진짜’지각을 가지는 상황과 ‘가짜’지각을 가지는 상황 사이의 함축관계)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바로 이 점 때문에, 꿈의 가설 역시 폐쇄성-기반 회의론 논변으로 구성될 가능성을 얻게 된다. 다음의 기초 논변을 살펴보자.

## &lt;꿈 가설Dreaming Hypothesis 기초 논변&gt;

DH-BA<sub>1</sub>. 나는 나의 손에 대한 진짜 지각을 가지고 있다.

DH-BA<sub>2</sub>. 만약 내가 나의 손에 대한 진짜 지각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바로 그 지각을 꿈속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DH-BA<sub>c</sub>. 나는 바로 그 지각을 꿈속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 전제, DH-BA<sub>2</sub>는 New-BA<sub>2</sub>와 마찬가지로 참이다. 내가 꿈속에서 얻게 되는 지각은 전능한 기만자의 세계에서 가지게 되는 지각과 마찬가지로 속임수 지각이다. 따라서 내가 ‘진짜’ 지각을 가진다

는 것은 내가 꿈속에서 그 지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함축한다. 이처럼 우리는 꿈의 가설과 관련된 필연적 함축 문장  $DH-BA_2$ 를 획득하였으므로, 우리는 꿈의 가설에 기반하고 있는 회의론 논증을 구성할 준비를 갖추었다. 실제로 회의론 논증을 한 번 구성하여 보자.

<꿈 가설 기반 회의론 논증>

DHS<sub>1</sub>. 만약 내가 나의 손에 대한 ‘진짜’ 지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나는 내가 바로 그 지각을 꿈속에서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DHS<sub>2</sub>. 나는 바로 그 지각을 꿈속에서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다.

DHS<sub>3</sub>. 나는 나의 손에 대한 ‘진짜’ 지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다.

위의 논증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는 드디어 꿈의 가설에 기초를 두고 있는 폐쇄성-기반 회의론 논증을 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 극단적 회의론 논변들을 모두 폐쇄성-기반 형태를 바꿀 수 있는 방식을 얻었으므로, 우리는 i)프라이어의 공통성 논제를 만족시키면서도, 그와 상충되는 것처럼 보였던 ii)폐쇄성 논제 역시도 만족시킬 수 있게 되었다.

### Ⅲ. 새로운 폐쇄성-기반 회의론 논변으로부터의 두 가지 관찰

나는 이 새로운 폐쇄성-기반 회의론 논변이 기존의 논변에 비해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이 새로운 논변 형식은 회의론의 기본 목표를 잘 보존하고 있다. 회의론 논변의 목표 중 하나는, 일상적 지식을 제공하는 중요한 원천이라고 볼 수 있는 감각 지각들이 사실은 전혀 지식의 원천이 될 수 없음을 보이는 것에 있다. 본고에서 내가 새롭게 구성한 폐쇄성-기반 회의론 논변은 바로 이 점을 잘 보여준다.

꽃에 대한 나의 지각은 얼핏 보기에, “내 앞에 꽃이 있다.”라는 믿음을 어느 정도 정당화 해주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바로 그 지각은 “내 앞의 꽃에 대한 나의 지각은 진짜 지각이다.”라는 믿음을 전혀 정당화해 주지 못한다. 도대체 꽃에 대한 지각이 어떻게 그 지각 자체가 진짜인지 속임수인지를 말해 줄 수 있다는 말인가? 흠이 옳게 지적하였듯이, 지각은 오로지 그 지각 내용만을 전달해 주는 것이지, 지각 자체의 진짜, 가짜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주지 않는다. “지각”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지각의 내용”이라는 말의 다른 이름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물론 프라이어는 꽃에 대한 지각이 “내 앞에 꽃이 있다.”라는 믿음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내 앞의 꽃에 대한 나의 지각은 진짜 지각이다.”라는 믿음을 선행적으로 정당화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나는 이 주장이 도대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가짜 지각인지, 진짜 지각인지를 알기 이전에 그 지각 자체에 기대어 어떤 믿음을 믿는다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굳이 기괴한 회의적 가설 상황에서 아니더라도, 지각은 다분히 우리에게 속임수 정보를 주는 경향을 지니고 있지 않은가? 만약 지각 자체의 진짜, 가짜 여부를 따지기 이전에 지각에 기대어 어떤 것을 믿으려 한다면, 이는 마치 사기꾼일지도 모르는 자의 말에 기대어 어떤 믿음을 정당화하려는 행위와 동일하다고 밖에 할 수 없다.<sup>5)</sup>

새로운 폐쇄성-기반 회의론 논변이 지니는 또 다른 장점은 위의 장점으로부터 곧바로 따라 나온다. 소위 “보증warrant 전이transmission의 실패failure 문제”의 해결이 바로 그 장점이다. 보증 전이의 실패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해 앞서 살펴보았던 기존의 기초논변형태를 다시금 떠올려 보자.

---

5) 이 아이디어는 라이트가 쓴 논문(Wright, 2007)에도 깔려있다고 하겠다. 라이트는 “보증임을 주장하기claiming a warrant” 개념(p.9)을 사용하는데, 이는 내가 사용한 독립적 보증 개념과 잇닿아 있다. 그러나 라이트는 여기에서 본고에서 제시된 것과 같은 명시적인 회의론 형태를 제시하지는 않는다.

- BA<sub>1</sub>. 나는 손을 가지고 있다.  
 BA<sub>2</sub>. 만약 내가 손을 가지고 있다면, x가 아니다.  
 BA<sub>c</sub>. x가 아니다.

이제 'x'의 자리에 “전능한 악신의 가설”을 대입하고, 논의를 시작하자. 보증warrant은 어떤 믿음을 믿는 것을 합리적으로 만들어주는 근거 개념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가 BA<sub>1</sub>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갖게 되는 보증은 아마도 손에 대한 우리의 지각일 것이다. 이 감각 지각을 “W(BA<sub>1</sub>)”이라고 부르도록 하자. 이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의문을 갖게 된다. 왜 W(BA<sub>1</sub>)은 BA<sub>1</sub>에 대한 믿음을 보증하면서도, BA<sub>1</sub>의 논리적 함축인 BA<sub>c</sub>에 대한 믿음을 보증해주지는 못하는가? 왜 W(BA<sub>1</sub>)은 논변의 전제로부터 결론으로 전이되지 못하는가? 바로 이것이 보증 전이의 실패 문제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 많은 철학자들이 설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들은 i)우선 W(BA<sub>1</sub>)이 정말로 BA<sub>1</sub>에 대한 보증임을 받아들이고, ii)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W(BA<sub>1</sub>)이 BA<sub>c</sub>를 보증해주지는 못하는지를 설명하려고 노력한다(Davies, 1998; Wright, 2000). 나는 본고에서 이들의 설명에 대해 자세하게 논의하지는 않겠다.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내가 보기에, 이 문제는 그 설정 자체가 잘못 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며,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필요가 없이 해소해 버리면 그만이다.

위의 질문이 제기되는 이유는 오로지 W(BA<sub>1</sub>)이 BA<sub>1</sub>에 대한 보증이 될 수 있음을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BA<sub>1</sub>에 대한 지각적 보증인 W(BA<sub>1</sub>)이 BA<sub>1</sub>에 대한 보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미 말하였다시피, 지각은 그 지각 자체의 진짜-가짜 여부에 대해서 전혀 알려주지 못한다. 그 지각 자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이상, 그 지각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은 정당하거나 합리적인 것이 될 수 없다. New-BA<sub>1</sub>, 즉 “나는 나의 손에 대한 지각이 진짜라는 것을 안다.”가 참이 되기 전에는, “나는 손을 가지고 있다.”라는 믿음이 지각에 의하여 보증될 수 없다. 따라서 W(BA<sub>1</sub>)은 New-BA<sub>1</sub>이 보증되기 이전에는 BA<sub>1</sub>에 대한 보증이 아니다.

이제 보증 전이의 실패 문제는 해소된다.  $W(BA_1)$ 의 전이와 관련 하여서는 오로지 다음의 두 가지 상황만이 가능하다: “i)  $W(BA_1)$ 만 독립적으로 주어진 경우에는 전이되지 않는다. 반면 ii)  $W(BA_1)$  외에 독립적인 보증이 주어지는 경우,  $W(BA_1)$ 과 그 독립적인 보증은 논증을 통하여 전이된다.”(Silins, 2005, Sec5.2)  $W(BA_1)$ 이 독립적으로  $BA_1$ 을 보증하면서도, 논증을 통한 전이에 실패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아마도 기존의 철학자들이 이처럼 해소될 수 있는 문제를 붙잡고 있었던 것은 그들이  $BA_1$ 의 형태를 고수하고자 하였거나, 혹은  $New-BA_1$ 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 더 새로운 독단주의

나는 i)프라이어의 공통성 논제, 즉 극단적 회의론 논변들은 공통적 형태를 지닌다는 주장을 받아들이면서도, ii)폐쇄성 논제, 즉 극단적 회의론 논변들은 폐쇄성 원리에 의하여 일반화 되어야만 한다는 주장을 여전히 고수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내가 해결해야만 했던 문제는 극단적 회의론 논변 중 하나인 꿈의 가설 기반 회의론 논변에 있었다. 꿈의 가설 논변은 폐쇄성 원리에 의하여 일반화 될 수 없는 것처럼 보였다. 만약 꿈의 가설 논변이 폐쇄성 원리에 의하여 일반화 될 수 없다면, i)공통성 논제를 유지하면서 ii)폐쇄성 논제 역시 유지할 방법은 없다. 이 문제로부터 빠져나가기 위하여, 나는 폐쇄성 원리가 꿈의 가설 논변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회의론 논변의 기본 형태를 수정하였다. 그리고 이 수정된 형태로부터 우리는 회의론 문제와 연관된 중요한 두 가지 통찰에 도달하였다.

아마도 지금까지의 논의에 대하여 혹자는 본고의 궁극적 목표인 “더 새로운 독단주의 제시”가 의아하게 느껴질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는 다분히 회의론에 대하여 우호적이며, 프라이어 식의 독단주의를 파괴하려고 의도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내가 구성하고자 하는 독단주의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한다. 나의 독단주의는 다음의 명제들로 구성된다.

(a)지각만으로는 우리의 지각적 믿음이 정당화되지 않는다. 우리의 지각적 믿음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지각 이외의 독립적인 다른 정당화 근거들이 필요하다.

(b)그러나 나의 믿음이 지식이 되기 위해서, 그러한 독립적 정당화 근거들이 나의 믿음을 완전하게 정당화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

(c)일정 정도의 독립적 근거들만 충족된다면, 나의 지각은 나의 믿음을 정당화해 줄 수 있다.

우선, 나의 독단주의는 (a)지각만으로는 우리의 믿음을 정당화하지 못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회의론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그러나 (b)우리의 지각의 진짜-가짜 여부를 알려주는 독립적인 정당화 요소들이 완전한 정당화여야만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c)더 새로운 독단주의는 여러 가지 단계를 지닐 수 있다. 혹자는 지각의 진짜-가짜 여부를 알려주는 근거로서 지각들 사이의 정합성 정도로 만족할 수도 있다. 지각들 사이의 정합성은 지각 자체가 아니므로 지각을 위한 독립적 정당화 요소로 기능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 좀 더 엄밀함을 즐기는 사람들은 정합적인 지각들 전체가 모두 속임수일 가능성을 제기할 수도 있다. 아마도 그러한 사람들 중 일부는 우리가 지각적 경험에 의하여 가지게 된 지식 전반, 내지는 인류가 달성한 지식 전반과의 연관관계를 지각의 진짜-가짜 여부를 알려주는 근거로 삼을 수도 있다. 이외에도 여러 단계의 독단주의가 있을 수 있다. 아마도 이들은 각각 지각의 진짜-가짜 여부에 대한 서로 다른 정당화 근거를 제시할 것이며, 그 근거를 자신들이 지니고 있음에 만족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완전한 정당화’ 개념을 거부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하나의 범주로 엮일 수 있으며, 우리는 그들을 통틀어서 회의주의에 반대하여 “알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독단주의자로 분류할 수 있다.

위의 논의로부터 더 새로운 독단주의의 구성 작업은 완료되었다. 그렇다면 이 독단주의는 프라이어의 독단주의와 어떻게 다른가? 다음의 세 가지 점을 지적할 수 있겠다.

D<sub>1</sub>. 프라이어의 독단주의는 폐쇄성-기반 회의론 논변으로부터 벗어나 있다.

D<sub>2</sub>. 프라이어의 독단주의는 단일 독단주의로, 정도degree 개념을 허용하지 않는다.

D<sub>3</sub>. 프라이어의 독단주의는 지각이 즉각적으로 나의 지각적 믿음을 정당화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첫 번째 차이점 D<sub>1</sub>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프라이어는 자신의 논문에서 분명히 공통성 논제와 폐쇄성-기반 논변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침식-파기자 논제로 넘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실 침식-파기자 논제는 앞서의 논의 없이도 독립적으로 주장될 수 있는 것들이다. 즉, 프라이어의 주장은 폐쇄성-기반 회의론 논변에 대한 부정적 논변 없이 곧바로 침식-파기자 형태의 회의론 논변에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D<sub>1</sub>의 차이점이 프라이어가 행한 논의 그 자체의 정합성에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는다. 그러나 만약 내가 주장한대로 폐쇄성-기반 회의론 논변이야말로 회의론 문제의 본질을 보여주는 적합한 논변 형태라면, 프라이어의 독단주의가 회의론과 관련된 논의에서 가지는 의미는 감소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 차이점인 D<sub>2</sub>를 살펴보도록 하자. 프라이어의 독단주의는 단일한 입장에서 “우리의 지각이 우리의 지각적 믿음을 즉각적으로 정당화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그의 독단주의에는 정도의 개념이 존재할 수 없다.<sup>6)</sup> 그러나 나는 i)회의주의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일종의 독단주의자들이며, ii)그들 모두가 지각만으로 우리의 지각적 믿음이 즉각 정당화된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회의주의는 지식이 그 정당화에 있어서 완전무결한 것이어야만 한다는 입장에서 비롯된 입장이다. 실천적인 완벽주의자가 항상 모든 일의

6) 물론 프라이어 역시도, 어떤 사람이 회의론자인가, 반-회의론자인가의 판단 문제가 흑백처럼 선명하게 구분되는 문제가 아니라, 정도의 문제임을 받아들인다(Pryor, 2004, pp.362-366). 그러나 그는 반-회의론 일반이 하나의 독단주의로 분류될 수 있음을 보지는 못한 것 같다.

실행에서 부족함을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식의 완벽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지식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에 대하여 불만을 느끼기 마련이며, 바로 이 불만을 느끼는 이들의 입장이 회의주의인 것이다. 이 완벽주의에 반대하고, 어느 정도의 수준만 충족되면 그 믿음을 지식이라고 부르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모두 일종의 독단주의적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지각에 의한 즉각적 정당화를 주장하든, 혹은 여타의 추가적 정당화를 요구하든, 지식이 달성 가능함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장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이들을 하나의 입장으로 묶어서 “독단주의”라고 부를 수 있어야 한다. 프라이어의 독단주의 체계와는 달리, 본고에서 구성한 독단주의는 바로 이 다양한 정도의 독단주의를 하나의 공통점 아래 묶을 수 있는 체계를 제공한다.

프라이어의 독단주의와 본고의 새로운 독단주의 사이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은  $D_3$ 에서 드러난다. 프라이어는 나무에 대한 나의 지각이 “저기에 나무가 있다.”라는 나의 믿음을 곧바로 정당화해준다고 여긴다. 아마도 프라이어는 지각이 나의 믿음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나의 지각은 속임수 지각이 아니다.”라는 중간단계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본 듯하다. 그러나 바로 그 점에 대해서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나의 지각은 내 안에 있는 것이고, 나의 믿음은 외부 대상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과연 나의 지각이 외부 대상에 대한 믿음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참된 genuine 근거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과정은 선행되어야만 한다.<sup>7)</sup> 요컨대, 나의 지각이 나의 믿음을 정당화하려면, “나의 지각은 속임수 지각이 아니다.”라는 믿음이 먼저 정당화 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나는 이것이 극단적 회의론 논변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통찰들 중의 하나이며, 우리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만 한다고 생각

7) 물론 이 선행 과정이 사실적, 의식적으로 선행되어야만 한다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이미 지각의 습득 과정에 익숙해져 있으며, 위와 같은 의식적 선행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로부터 곧 지각이 애초부터 그러한 선행 과정 없이 곧바로 지각적 믿음의 정당성을 보증한다는 주장을 끌어낼 수는 없다.

한다. 본고의 새로운 독단주의는 바로 이 통찰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에서 프라이어의 독단주의와 차별화된다.

#### IV. 결론: 더 새로운 독단주의의 귀결

내가 구성한 독단주의의 귀결 한 가지를 살펴봄으로써, 나는 본고의 논의를 마치고자 한다. 앞서 말한 바대로, 내가 구성한 독단주의는 ‘정도’ 개념을 허용한다. 그러나 내가 구성한 독단주의는 단순히 독단주의에만 ‘정도’의 개념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 개념 전반에 대해서 ‘정도’의 개념을 허용한다. 나는 회의주의 문제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프라이어와 같은)이 보통 ‘지식’이라고 정당하게 불릴 수 있을 만한 것을 규정하기 위한 기준선을 긋고 있다고 생각한다. 각각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기준선을 통과한 것들은 ‘지식’으로 불리며, 그렇지 못한 것들은 ‘의견’과 같은 이름을 얻게 된다. 혹자는 이 기준선을 매우 높은 곳에 둘 것이다. 그 경우, 이 사람은 회의주의자에 가깝거나 회의주의자이다. 반면, 이 기준선을 그렇게 높지 않은 곳에 두려는 사람들은 대체로 독단주의자의 성향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결국 어떤 사람이 회의주의자인가, 혹은 독단주의자인가의 문제는 이 기준선이 어디에 그어져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다. 만약 회의론자인가, 독단론자인가의 결정 문제가 이와 같은 기준선 긋기의 차원에 해당된다면, 우리는 회의주의자와 독단주의자 사이의 논쟁이 결국 언어적 문제에 불과하다고 여길 충분한 이유를 얻게 된다. 더 나아가 정말로 회의주의자와 독단주의 사이의 논쟁이 언어적 문제라면, 우리는 회의주의 문제 자체보다는 지식의 기준선을 어디에 긋는 것이 더욱 합당한가의 논쟁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sup>8)</sup>

8) 회의주의에 관한 여러 논의들은 어느 정도 이러한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내가 지적하는 바는, 회의주의 관련 논의의 내용이 어떠해야만 하는가의 문제에 대한 답변이라기보다

## Reference

- Crispin Wright(2000), “Cogency and Question Begging: Some Reflections on McKinsey’s Paradox and Putnam’s Proof”, *Philosophical Issues*, vol.10: Skepticism pp.140-161
- \_\_\_\_\_ (2007), “The Perils of Dogmatism”, *Themes from G. E. Moore: New Essays in Epistemology and Ethics*, Clarendon Press: Oxford
- James Pryor(2000), “The Skeptic and the Dogmatist”, *NOUS*, 34:4, pp. 517-549
- \_\_\_\_\_ (2004), “What’s wrong with Moore’s Argument?”, *Philosophical Issues*, vol.14: Epistemology, pp.349-378
- Martin Davies(1998), “Externalism, Architecturalism, and Epistemic Warrant”, *Knowing Our Own Minds*, Crispin Wright and Barry C. Smith and McDonald, Cynthia, 1998, Oxford UP: Oxford
- Nicholas Silins(2005), “Transmission Failure Failure”, *Philosophical Studies*, Vol.126, 71-102

---

는, 그 논의가 어떤 형식을 취해야만 하는가의 문제에 답변이다.

ABSTRACT

## Dogmatism, and Another Dogmatism

Kim, Jun-Yeol

In this paper, I will show that Pryor's dogmatism has a defect, and construct 'a' new dogmatism. Pryor criticizes the principle of closure of knowledge under known entailment. By making some changes on the form of skeptical argument based on the principle of closure, you will see that it is possible for a skeptic to overcome the criticism of Pryor, and that the new closure-based skeptical arguments give us opportunity to see the new form of dogmatism which I want to present in this paper. By this new form, we can involve an important insight about the skeptic while denying the skeptic.

**Keywords:** Skepticism, Dogmatism, Closure, Warrant transmission